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

적중 분석

상상국어평가연구소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상상국어평가연구소
적중 분석

■ 적중 사례 모아보기

영역	제재(문항)	상상국어 적중 문항	적중 내용
독서	[4~9] 영화의 해석과 SF	『이매진』 4호 2주차 DAY 1	지문 적중, <보기> 적중, 선지 적중
	[10~13] 공공 저널리즘	『이매진』 6호 4주차 DAY 2	지문 적중, <보기> 적중, 선지 적중
	[14~17] 지각부호화와 오디오 신호 압축 기술	『이매진』 3호 1주차 DAY 4	지문 적중
문학	[18~21] 이화전	『이매진』 6호 3주차 DAY 4	작품 적중, <보기> 적중
	[22~26] 경사	『이매진』 4호 1주차 DAY 1	작품 적중, 선지 적중, <보기> 적중
	[27~30] 화전가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작품 적중, 대목 일치, 선지 적중, <보기> 적중
		『이매진』 4호_4주차 DAY 3	대목 일치, 작품 적중, <보기> 적중, 선지 적중,
	[27~30] 공명을 헤아리니~	『이매진』 6호 1주차 DAY 3	작품 적중, <보기> 적중
언어	문장(35~36번)	상상국어 시즌3 4차	내용 적중
	담화(37번)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5일차 37번	선지 적중
	단어(38번)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9일차 38번	내용 적중

독서: 복합 [4~9] 「영화의 해석과 SF」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

SF(Science Fiction)는 기존의 검증된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허구성의 상황 설정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전사 예술이다. 과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다고 해서 SF가 다루는 소재나 서사가 모두 과학적으로 사실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SF에서는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 즉 작품의 주요 설정이나 사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으로 납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기발한 상상력이 촉발하는 경이로움은 SF의 중요한 장르적 특징이다. SF에 등장하는 장대하고 압도적인 대상들은 광대한 자연을 마주했을 때와 유사한 경이로움을 선사한다. SF 연구자 다르코 수빈은 SF에서 당대의 지식, 기술, 경험을 뛰어넘어 경이로움을 안겨 주는 대상을 노붐이라고 이름 붙였다. 라틴어로 '새로움'을 의미하는 노붐은 일회적인 놀라움을 유발하는 장치가 아니라,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요소이자, 현실 세계와 SF 작품이 묘사하는 허구적 세계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또한 작품의 세계관을 드러내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노붐은 SF 작품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수빈은 SF가 현실의 반영이라고 말한다. SF는 미래 세계에 대한 상상을 표현하지만, 그 상상은 작품이 생산된 그 시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SF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시·공간적 설정 등은 그 시대의 현실과 유사하면서도 다르다. 수빈은 이처럼 현실을 닮았지만 현실과는 다른 SF 속의 세계가 인지적 낯섦을 촉발한다고 말한다. SF 속에 등장하는 대상은 현실에서 일상적이고 친숙했던 대상을 낯설고 새롭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 '낯섦'을 유발하는 것은 '다름'이며, 작품을 통해 다름을 인지함으로써, 우리는 현실에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된다.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정서적이고 지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A] 수빈은 SF가 등장하기 이[illegible] 통해, 낯선 미지의 세계에 [illegible] 말한다. 특히 수빈은 이상적인 [illegible] 다룬 이야기와 SF 사이의 유사성을 인정하고 유토피아를 SF의 중요한 소재로 받아들인다. 오늘날 환경 오염, 전쟁 등으로 인해 인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적인 세계를 탐색하는 SF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수빈은 주장한다.

『이매진』 4호 50쪽_2주차 DAY 1

(가)

SF(Science Fiction)는 과학적 상상력을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하는 장르이다. 과학적 상상력이란 현재 불가능한 사건이나 사물이 실현된 모습을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SF는 주로 현재의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일어날 법한 사건이나 사물을 다룬다. 이 점에서 SF는 환상이나 초자연적 현상에 기반한 환상 소설과 구별된다.

SF 이론에서는 SF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사고 실험을 꼽는다. SF는 과학적 상상력을 토대로 끊임없이 '만약에?'라는 질문을 제기하여, 독자가 일상적 삶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사고 실험에 참여하게 한다. 이때 사고 실험이란 단순한 조건을 설정하여, 현실 가능성과 무관하게 오직 사고 내에서 특정 현상을 예측하는 가상 실험이다. SF는 기존의 사고 실험을 통해 예측된 현상 또는 새롭게 창안한 사고 실험의 내용을 서술함으로써, 독자에게 일상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SF 이론이 제시하는 SF의 또 다른 특징은 외삽법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외삽법은 과거 경험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사고 실험에 개연성과 합리성을 부여한다. SF가 사고 실험을 통해 제시하는 미래의 모습이 독자들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상력만이 아니라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외삽법이 사용된다. 즉 SF는 외삽법을 활용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생생히 보여 주며, 이를 통해 기술 낙관주의 대신 미래에 관한 비판적 전망을 주로 제시한다. 기후 변화처럼 현재의 기술 남용으로 생길 미래 문제들을 독자들이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하여,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숙고하며, 개방적이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로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게 된다.

지문 적중

독서: 복합 [4~9] 「영화의 해석과 SF」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8. <보기>는 영화 비평이다. (가), (나)를 바탕으로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지난주 개봉한 SF 영화 「○○」 속 미래 세계는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허공의 도시는 첨단 과학 기술이 집약된 세계의 우주선 같은 몸체이고, 지상은 무너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다. 화면 가득 등장하는, 은빛으로 빛나는 허공의 도시는 가히 압도적이다. 몇몇 장면은 물리적 법칙에 어긋나 보이지만, 주요 사건의 인과 관계가 설득력이 있어서 영화의 전개를 따라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두 구역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서사는 우리 사회를 풍자하게 한다는 다만, 두 구역 간의 갑작스러운 화해로 맺는 결말은 요즘 유행하는 SF 영화의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①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 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에 해당하겠군.
② <보기>에서 '허공의 도시'와 관련해 언급한 '압도적'인 느낌은, (나)에 따르면 SF의 장르적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③ <보기>에서 '몇몇 장면'의 과학적 오류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나)에 따르면 SF에서 과학적 진위가 아니라 개연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관련 있겠군.
④ <보기>에서 두 구역의 갈등을 다룬 서사가 '우리 사회를 풍자하게 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물질적이고 외부 현상 사회를 중심으로 통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⑤ <보기>에서 최근 'SF 영화의 경향'이라고 간주한 '갑작스러운 화해'는, (가)에 따르면 대중의 취향이 영화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이매진』 4호 51쪽_2주차 DAY 1

5.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독서 감상문이다. 이에 대해 (가)의 SF 이론(A)의 관점과 (나)의 메이야수(B)의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최근 읽은 소설이 인상적이었다. 소설은 과학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미래 사회에서 어느 날 전기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일들을 그린 작품이었다. ㉮ 소설 초반부는 과학 기술에 의해 곧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었기에, 소설을 읽는 동안 내게 미래 사회의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려졌다.

그런데 전기가 사라지는 사건을 기점으로, ㉯ 소설 후반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전기가 사라져 모든 기계 장치가 멈추자 도시가 혼란에 빠지면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그러더니 도통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지 않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연속해서 발생했고, 소설 속 인물들이 그러한 사건들에 좌절하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 소설을 다 읽고 나니 우리의 일상 세계가 과학 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① A의 관점에서, 학생이 ㉮를 읽으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가 실제 경험에 근거하지 않고 상상력만으로 새로운 세계를 그렸기 때문이다.
② A의 관점에서, 학생이 글의 다른 모든 읽은 후 과학 기술에 관해 고민하게 된 것은 SF 소설이 독자에게 과학 기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③ B의 관점에서, 학생이 ㉮를 사실적이라고 느낀 것은 ㉮가 인과법칙의 필연성에 근거한 세계를 표현했기 때문이다.
④ B의 관점에서, 학생이 ㉯의 사건들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은 ㉯가 인과적 서사가 없는 세계를 묘사했기 때문이다.
⑤ B의 관점에서, 학생이 ㉯를 불편하게 느낀 것은 ㉯가 관습적으로 이해되는 세계의 틀을 벗어난 불확실한 세계를 묘사했기 때문이다.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독서: 사회 [10~13] 「공공 저널리즘」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공공 저널리즘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일찍이 언론과 공중의 관계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진 리프만과 듀이의 견해에서 찾을 수 있다. 리프만은 공중이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고정 관념의 틀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고정 관념을 ⓒ분별할 수 있는 이는 드물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중은 공공의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뉴스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것은 언론인의 전문화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듀이는 공중을 합리적인 존재로 보았다. 그는 ㉠파편화된 공중의 유기적인 결합을 위해 언론이 공적 담론의 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중이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는 이성적인 공적 담론의 장을 통해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학자 로젠에 따르면, 공공 저널리즘은 공중을 공공 문제의 잠재적 참여자로 간주하고,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을 공론장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공 문제의 해결 방안이 원활히 토의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공공 저널리즘은 설문이나 회의,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 인터뷰 등의 사회 과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지문 적중

『이매진』 6호 100쪽_4주차 DAY 2

반약 심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더라도,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결론은 민주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심의 민주주의를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이들은 다음의 문제들을 지적한다. 첫째는 ㉮시민들의 정치적 역량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들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단편적 정보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시민들이 정책 이면에 있는 복잡한 이해관계 등을 이해하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한다. 둘째는 ㉯심의를 통한 의견 변화 가능성의 한계이다. 개인은 단기간의 토론만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오히려 기존 신념과 유사한 의견에 이끌려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합의에 이르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셋째는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무책임한 권한 행사를 방지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정책 결정권을 갖는 대의 민주주의를 따른다. 이러한 체제에서 시민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대의제의 원리와 충돌하며, [A] 을 귀속하면 시민 참여가 단순 있다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

자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시민들이 그러한 특성이 있더라도 이들은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정보에 노출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절차를 보장하면, 시민들도 특정 사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춰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둘째, 심의를 통한 의견

(중략)

㉠공론 조사는 이러한 심의 민주주의자들의 견해가 반영된 사례이다. 이는 정부가 특정 정책에 대한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이다.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은 먼저 정책에 대한 1차 설문에 참여한 뒤, 전문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후 진행자의 조율 아래 토론을 거친 후, 2차 설문에 응답한다. 이렇게 도출된 조사 결과는 언론이나 정책 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되므로 정책 결정권자는 공론 조사 결과를 고려하게 된다.

독서: 사회 [10~13] 「공공 저널리즘」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사례 1〕 A 지역 ○○ 신문사는 지역민 인터뷰를 통해 그 지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높은 범죄율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범죄 문제에 관해 자문할 지원자를 모집하여, 공정한 절차를 통해 지역민과 사회 지도자 및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지역 자문단 회의에서 범죄 퇴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신문사는 그 결과를 취합·분석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시민 포럼 등에서 관련 논의가 이어졌고, A 지역의 범죄율은 크게 낮아졌다.

〔사례 2〕 B 지역 △△ 신문사는 설문을 통해 지역민의 최근 관심이 지역 경제 위기임을 파악하여, 전문가와 지역민 대상의 집단 인터뷰를 마련하고 수차례 회의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으로 국제 행사 유치를 논의했다. 그 결과, 전문가는 B 지역의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나 행사 유치를 강력히 원하는 지역민의 입장에 동화된 신문사는 B 지역이 적합한 후보지라고 보도했다. 최종적으로 B 지역은 행사 개최지로 선정되지 못했다.

『이매진』 6호 101쪽_4주차 DAY 2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출된 시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가 정책을 결정하는 A시는 대중교통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램 도입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시민들은 정책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공론 조사가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일부 시의원들이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A시는 공론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설문에서 시민의 과반수가 트램 도입에 반대했으나, 2차 설문에서는 반대하던 시민 중 일부가 찬성으로 바뀌었다. 공론 조사 결과는 시의회에 제출되었다. 일부 언론은 해당 심의 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으나, A시가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공식으로 답변함으로써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보기> 적중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11.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중이 각자의 경험과 지식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② 공중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공공 문제를 해결했음을 전제로 한다.
③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④ 공중이 공공 문제에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할 때 실현 가능하다.
⑤ 공중이 공공 저널리즘의 취재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지녀야 할 요건이다.

『이매진』 6호 101쪽_4주차 DAY 2

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의 대상이 되는 시민은 특정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민들의 심의 내용을 존중하기 위해 그 결과는 정책 결정권자에게만 전달된다.
③ 정책에 관해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모든 설문은 토론에 앞서 실시된다.
④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토론을 진행하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의사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⑤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절차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의 합리성을 높이는 장치로 작용한다.

선지 적중

독서: 기술 [14~17] 「지각부호화와 오디오 신호 압축 기술」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소리 등의 음향을 저장하는 방법은 축음기에서 저장하여 매체의 발명과 발맞추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축음기의 원리는 간단하다. 얇은 부분에 날카로운 바늘을 장착한 원판형 녹음을 준비한다. 바늘 아래에 일정하게 규칙적인 회전을 내고 나팔에 소리를 들려준다. 소리는 나팔의 진동으로 바뀌고 진동의 형태를 따라서 바늘이 원판 홈을 긁어서 소리를 저장한다. 이것이 초기 축음기의 원리인데,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하였고, 이후에 등장한 매체에서도 한동안 소리를 아날로그 형태로 기록하였다.

현재는, 소리를 디지털 신호, 즉 이진수로 이루어진 오디오 신호로 바꾸어 파일로 저장한다. 한 파일 내의 오디오 신호에는 모든 소리 크기에 균일한 개수의 비트가 할당된다. 일반적으로 각 소리 크기에 16비트를 할당하며, 소리 크기에 따라 16자리의 이진수 값을 달리한다. 각 소리 크기에 할당되는 비트의 개수가 늘면 소리는 아날로그 원음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오디오 파일은 저장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많다. 따라서 저장 공간을 아끼고 전송이 가능하도록 오디오 신호를 압축할 필요가 있다.

『이매진』 3호 48쪽_1주차 DAY 4

1877년 에디슨은 소리가 닿은 물체는 진동하고, 진동하는 물체에서는 소리가 난다는 원리를 바탕으로 소리를 저장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계인 축음기 '포노그래프'를 발명했다. 포노그래프는 주형으로 놓인 원통의 중앙 옆면 양쪽에, 바깥쪽이 열린 귀 모양의 녹음 장치와 재생 장치가 하나씩 설치된 구조로 되어 있다. 두 장치가 만나는 부분에는 얇은 진동판이 있고, 그 중앙에 바늘이 부착되어 있다. 녹음 시에는 바늘을 원통에 대고, 회전축에 연결된 손잡이로 원통을 회전시킨다. 소리가 녹음 장치에 전달되면 음파에 맞춰 진동판이 진동하고, 그에 부착된 바늘이 원통 옆면에 수직 방향으로 홈을 새기는데, 홈의 깊이는 음파의 진폭이 클수록 깊다.

(중략)

1887년 베를리너는 원통 대신 원반을 저장 매체로 쓰며 녹음용 기기와 재생용 기기가 분리된 축음기 '그래머폰'을 발명했다. 녹음용 기기에서 바늘은 회전하는 원반의 바깥에서 중심을 향해 나선형으로 이동하면서, 원반 표면에 방행한 방향으로 좌우로 좁게 진동하여 홈을 새긴다. 이때 음파의 진폭이 클수록 홈이 넓게 새겨진다. 반대로 재생용 기기에서는 바늘이 원반 위에 새겨진 홈을 레일처럼 타고 이동하면서 진동하여 소리를 재생한다. 그래머폰도 초기에는 사용자가 직접 원반을 돌려야 했으나, 이후 모터가 원반을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도록 발전 [illegible] 한 원반에서 바늘은 같은 시간 [illegible] 바늘의 이동 경로는 원반 안쪽 [illegible] 에 바늘이 원반 중심에 가까울 [illegible] 랐다. 이로 인해 그래머폰에는 ㉠바늘 위치에 따라 소리가 왜곡되어 음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기술 수준에서는 이보다 매체의 물성이 음질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베를리너는 원반의 재료를 바꾸어 음질을 개선하였다.

지문 적중

문학: 고전 소설 [18~21] 「이화전」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이화 이 말을 듣고 기뻐서 왈,

"내가 착실히 할 것이니 염려 말라."

하고 ㉡각 면에 하령하니, 그물을 맺어 둘러치고 억만 사람으로 겹겹이 둘러 진 치고 나무를 베어라 하니, 모든 관리와 백성이 일시에 말려 왈,

[A] "이 나무가 극히 영험하와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 때때로 나오니 이는 신선이라. 신기한 변화 무궁하니 이 나무 베시면 백성이 다 죽기 쉽사오니 성주께도 화 있사온가 하나이다."

원이 대소 왈,

"너희 무삼 지각이 있노라 감히 내 명을 거스르느뇨. 개의치 않으니 나무 속 요괴를 잡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들 이 창검으로 처벌하리라. 빨리 나무를 베어 착실히 다 잡으라."

하고 호령하니, 꾸짖는 소리에 산이 무너지고 고을이 터질 듯하니, 모든 군사 문득 두렵고 겁이 나서 일시에 달려들어 베니 과연 나무 속에 유혈이 낭자하니, 다 실색 창황치 않을 수 없어 일시에 빌어 왈,

"이 나무 변이 이와 같사오니 덕분에 베지 마사이다."

원이 문득 고성으로 크게 꾸짖어 왈,

"너희 관원의 지휘를 받아 목숨이 비록 다해도 마치지 아니려든, 나무 재변이 이와 같으매 베는 바라. 너희 방자히 굴어 대사를 이렇듯이 그릇되게 하니 반드시 살리지 못하리라."

하고 호령이 추상 같으니, 제군이 마지못하여 일시에 베니라.

연하여 나무 위에 백발 노옹과 노파가 있어 '살리라' 벽력같이 소리 지르니, 문득 천지가 무너지는 듯 일광이 어둑해지고 음풍이 크게 일어나 진동하니, 성안의 제군이 다 거꾸러지고, 이화 겨우 정신을 차려 고성 왈,

"모든 군사는 창검을 발하여 [redacted]

연이어 재촉하니 모든 군사와 [redacted] 고합하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 [redacted] 되고 금빛 같은 여우라. 화살과 창검으로 ㉢그 심장을 찍음에 이르니 그제야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 왈,

[B] "이런 요괴가 읍중에 있어 종전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공 신기 이와 같사오니 이제는 태평을 누릴 줄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더니, 문득 보고하여 왈,

"죽은 여우 **수여우**뿐이라."

이화 대경실색하고 돌아오더라.

작자 미상, 「이화전」

『이매진』 6호 86쪽_3주차 DAY 4

〔**중략 줄거리**〕 이화는 이여백이 일러 준 대로 보라매를 사서 황제 뵙기를 청한다. 귀비로 둔갑한 여우는 황제에게 이여백이 조선 복색을 다 벗고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고한다.

"비록 황상의 명령이 있으나 죽을지언정 옷은 벗지 못하리라."

하고 손으로 모든 장사를 밀치고 정전에 들어갔다.

정전에 들어가니 황제가 귀비와 함께 앉아 계시거늘, 이화가 황상께 여덟 번 절하고 머리를 숙인 후 문득 소매에서 매를 내놓았다. 매가 바로 귀비의 머리에 날아가 앉아 **백호와 두 눈을 쪼아 먹으니 귀비가 변하여 황금 같은 여우**가 되었다. 황제가 ㉣대경실색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우를 끌어내라 하고 겨우 정신을 진정하여 이화를 나아오라 하고 손을 잡고 연고를 물으셨다.

이화가 전후사연을 자세히 주달하니, 황제가 차탄하고 상심하여 참담해하셨다. 황제는 귀인이 여우에게 죽은 것을 슬퍼하여 **여우의 주검을 조각**내어 귀인의 신위를 위하여 **제문 지어 제**하셨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이화의 신기한 도술이 아니었던들 거의 종묘사직을 보전하지 못하고 천하 강산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뻔하였도다."

많은 신하들이 일시에 만세를 불러 축하하여 말하기를,

"**이화의 신기묘산*으로 커다란 화를 진정**하였사오니 이는 폐하의 크나큰 복이로소이다."

상이 전교하시기를,

"이화를 **영능 태수 무신후**로 봉하라."

하고 금은보화를 많이 주셨다.

[redacted] 말하기를,

[redacted] 죄가 중하옵거늘 높은 봉작을 [redacted] 리이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폐 [redacted] 하는 [redacted] 하를 다스리소서."

상이 ㉤위로하여 말하기를,

"경은 진실로 사직지신(社稷之臣)이라. 조선에 지혜로운 사람이 많음을 기뻐하나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시니, 이화가 백배 사은하고 물러 나왔다.

작자 미상, 「이화전」

작품 적중

문학: 고전 소설 [18~21] 「이화전」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화전」은 전기 소설과 영웅 소설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 준다.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설정은 전기 소설의 면모를 보여 주며, 주인공이 위기 해결에 나서고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설정은 여타의 영웅 소설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력자가 직접 나서서 행동할 수 없는 혼령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 조력자가 주인공의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해 준다는 점, 주인공이 조언을 따르기만 할 뿐 조력자로부터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는 전수받지 못한다는 점 등은 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조력자나 주인공과는 구별되는 특이성을 보여 준다.

① '본국'의 '사변을 제어하'겠다고 말하며 국가의 위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주인공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군.

② 자신을 '베고자 하'는 이화에 [redacted]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 [redacted] 위협과 회유에 의해 조언을 [redacted]

③ '잡귀'를 잡는 것에 관해 이화가 여백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현실 세계에 속한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와 교섭하는 전기 소설로서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여백에게 '여우를 잡'는 방법은 듣게 되나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전수받지 못한 이화의 모습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주인공과는 변별되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여백의 조언을 따른 결과 '수여우'가 죽은 것에서, 영웅 소설의 일반적 조력자와 달리 조력자가 혼령임에도 주인공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군.

<보기> 적중

『이매진』 6호 86쪽_3주차 DAY 4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화전」에 등장하는 요괴는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형상화한 것이다. 요괴는 조선에서 중국으로 건너가 일을 꾸미는데, 주인공이 조선에 원군으로 왔다가 죽은 명나라 장수 이여매의 도움을 받아 요괴를 퇴치하거나 위기에 빠진 중국을 구하여 보은하는 설정을 통해 중국에 대한 당대의 우호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권선징악의 전형일 뿐만 아니라 혼란한 시대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당대인들의 염원이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① '네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먼저 헤아린' 탓에 '오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통해, 위기에 봉착한 주인공이 예지력을 지닌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군.

[redacted] 있음'을 언급하며 '은혜가 진실로 [redacted] 것을 통해, 조선에 원병을 보냈던 [redacted] 시각을 확인할 수 있군.

[redacted] 니 귀비가 변하여 황금 같은 여우'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 중국으로 건너가 귀비로 둔갑했던 요괴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④ '여우의 주검을 조각'내고 '제문 지어 제'한 뒤 황제가 이화를 '영능 태수 무신후'로 봉한 것을 통해, 요괴를 퇴치한 주인공이 공명을 떨치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⑤ '이화의 신기묘산으로 커다란 화를 진정'했다는 것을 통해, 주인공이 지닌 도술이 혼란한 시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군.

문학: 갈래 복합 [22~26] 「경사」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유자낡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거리감.

유자낡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박목월, 「경사」

『이매진』 4호 28쪽_1주차 DAY 1

(가)

㉠유자낡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지순(至純)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길에는 자갈이 빛났다. **건조한 가을길**에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은……)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傾斜感).

겨우 시야(視野)가 열리는 남색(藍色), 심오한, 잔잔한 세계. **하늘과 맞닿**을 즈음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水平)의 거리감(距離感)**.

유자낡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바다로 기울고, 가뿐한 나의 신발.

나의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오오 기우는 세계여.

박목월, 「경사」

작품 적중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이매진』 4호 28쪽_1주차 DAY 1

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나)와 달리,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바람을 드러내고 있다.
② (나)는 (가)와 달리, 원경화한 대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③ (가)는 색채 대비를 통해, (나)는 지시어의 사용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는 모두,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선지 적중

문학: 갈래 복합 [22~26] 「경사」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6.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 :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① (가)에서 화자는 '유자밭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듦이 당연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②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③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다)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다)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⑤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이매진』 4호 28쪽_1주차 DAY 1

2.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인간의 삶에 깃들어 있는 자연의 섭리를 환기하는 대상이다.
② ㉡과 마찬가지로 ㉢은 인간이 거스를 수 없는 힘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③ ㉢은 (가)의 화자가 현재의 삶에 대해 지닌 마음가짐을 시사하는 대상이다.
④ ㉢이 (가)의 화자가 감정을 투영한 대상이라면, ㉤은 (나)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표상하는 대상이다.
⑤ ㉤은 (나)의 화자가 ㉢의 이면을 들여다보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매진』 4호 29쪽_1주차 DAY 1

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의 화자는 늙음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에서 늙음은 초연한 삶의 경지에 다다르는 시간으로 그려진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는 나이가 들어 가는 것을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나)에서 늙음은 거리를 두고 대상을 관조할 수 있게 되는 시간으로 나타난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는 노년의 삶을, 존재의 본질을 깨닫고 내면의 성숙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① (가)의 '건조한 가을길'은, 늙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이전에 지녔던 화자의 부정적 시선을 함축하는 표현이겠군.
② (가)의 '하늘과 맞닿'은 '수평의 거리감'은, 초연한 삶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 상태를 나타낸 표현이겠군.
화자가 거리를 둠으로써 아름다움의
가리키는 표현이겠군.
줄'을 '안다는 것'은, 노년의 삶을
습을 드러내는 표현이겠군.
⑤ (가)의 '이 당연한 결과 (나)의 '멀어지는 일일 뿐'은 나이가
가 깨달은 바를 집약한 표현이겠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문학: 고전 시가 [27~30] 「화전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꾀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꾀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닫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먼 산 같은 눈썹일랑 아미로 다스리고
구름 같은 귀밑일랑 고운 머리로 꾸미도다
동해의 고운 명주 잔줄 지어 누벼 입고
가을볕에 바랜 베를 연반 물
선명하게 나와 서서
좋은 풍경 보려 하고 가려강
용산을 가려느냐 매봉으로 가

산명수려 좋은 곳은 소학산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태산같이 높은 고개 허위허
승지에 다닫거다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오산**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푸르렀으며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터로 나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시냇가**에 **걸어 놓**고
청유라 백분이라 화전을 지져 놓고
꽃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 오고 어서 오소
집에 앉아 수륙진미 맛보기는 하려니와
부녀자들 함께 즐김 이에서 더할소냐

(중략)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가)

어화 여인들아 이내 말씀 들어 보소.
태평세월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춥도 덥도 않은 봄철이라 실버들 드리운 곳에
꾀꼬리 펄펄 날고 산마다 울긋불긋
벌나비 나풀나풀 우리 꾀꼬리 벌나비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월 아니 놀고 무엇 하리.
하 많은 일 다 버리고 하루 놀음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스무닷새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아 바라더니 어느 결에 다다랐네.
아이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전코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불러서
차례로 달아나니 차림 단장 찬란하다.

[A]

(중략)

작품 적중

대목 일치

문학: 고전 시가 [27~30] 「화전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청계변에 복성 꽃은 **무릉원**이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흠 없이 다 즐기니
㉡ 소선(蘇仙)의 적벽(赤壁)인들 이에서 더할손가
이백(李白)의 채석(采石)인들 이에서 나을손가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냐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흩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작자 미상, 「화전가」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소나무 그늘 아래 의좋게 늘어앉아
꽃가지로 찍어 올려 봄맛을 쾌히 보고
남은 흥을 못 이기어 상상봉에 높이 올라
가없이 좋은 경치 한눈에 다 들이니
저 높은 백운산(白雲山)은 신선이 놀던 덴가.
반석(盤石) 위에 바둑판은 줄줄이 벌여 있고
그윽한 황학동(黃鶴洞)은 선녀가 있던 덴가. [B]
맑은 냇가 복사꽃은 무릉도원(武陵桃源) 의연하다.
이러한 좋은 경치 마음껏 다 즐기니
소동파 놀던 적벽(赤壁)강이 이보다 더할쏘냐.
이태백 놀던 채석(采石)강이 이보다 나을쏜가.
꽃 사이에 앉아 서로 보며 이르는 말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쏘냐.
규중에 썩힌 간장(肝腸) 오늘에야 쾌(快)한지고.
흉금(胸襟)이 시원하고 온몸이 호탕(豪宕)하여
봄날 하루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골짜기 들어 **재촉**하여
층암절벽 높은 산에 저녁연기 일어나고
벽수동 안에 잘새*가 돌아온다. [C]
흥대로 놀려 하면
산속 자연에 취한 사람 아닌 고로
바위야 꽃들아 잘 있거라 강산(江山)아 다시 보자.
풍년 들고 태평한 세월 오거들랑
백발 흩날리며 **고향 산천** 찾아오마.

작자 미상 「화전가」

작품 적중

대목 일치

문학: 고전 시가 [27~30] 「화전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대상의 동적 속성에 주목하여 자연 경물을 화려하다고 여기고 있음이 드러난다.
② ㉡: 수려한 경관이라고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대상과 관련지어 자연 경관에 대한 예찬을 드러낸다.
③ ㉢: 시간의 경과를 느끼게 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이 바뀌게 되는 배경이 드러난다.
④ ㉣: 과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속적 성취의 추구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다.
⑤ ㉤: 자연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속세로부터 벗어난 공간에 있음이 드러난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33.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차림 단장'은 '청명시절'을 맞아 들뜬 화자와 일행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② [B]에서 화자는 '적벽강', '채석강'과 '이러한 좋은 경치'를 비교하여 자신이 방문한 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③ [C]의 '봄날 하루 긴긴날'의 경험은 화자가 '태평한 세월'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데 영향을 미친다.
④ [A]에서 화자는 '꽃'을 매개로 자신과 다른 대상들 간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B]에서 화자는 '꽃 사이에 앉'아 다른 대상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⑤ [B]의 '신선'과 '선녀'는 탈속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C]의 '자연에 취한 사람'은 그 분위기에 동화된 데 따른 화자의 상태를 암시한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illegible]의 풍광을 감상하며 시간의 [illegible]의 심경을 드러낸다. (가)의 [illegible]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나)의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봄날의 흥취를 지속하려는 바람을 강조하며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① (가)의 '규중에 썩힌 간장'이 '오늘에야 쾌'해졌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에서 유람을 즐기며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의 '백발'을 흩날리며 '고향 산천'을 찾아오겠다는 것에서, 유람을 끝내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화자가 훗날을 기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③ (나)의 '잎 지고 꽃이 짐'에도 '흥취 있게 놀'려는 것에서, 아름다운 자연에 몰입되어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화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군.
④ (가)의 '이러한 태평세월'에 '아니 놀고 무엇 하'겠냐는 것에서 산수 유람의 당위성을 제시하는 화자의 의도를, (나)의 '옛 흥취'가 새롭다는 것에서 동일한 공간을 다시 방문한 데 따른 화자의 감회를 엿볼 수 있군.
⑤ (가)의 '서산에 지는 해'가 '재촉'한다는 것에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처지를 자각한 화자의 모습을, (나)의 '서산에 지는 해'를 '잡아매'려 하는 것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의 흥취를 지속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선지 적중

문학: 고전 시가 [27~30] 「화전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화자가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게 하는 원인이고, ⓑ는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함축하고 있는 대상이다.
② ⓐ는 화자가 기다리던 시기가 도래했음을 알려 주는 표지이고, ⓑ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가깝게 여기고 있는 대상이다.
③ ⓐ는 화자가 계절이 변화했음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고, ⓑ는 화자에게 특정한 계절을 연상하게 하는 대상이다.
④ ⓐ는 화자가 주변의 다른 존재들과 함께 즐기고 있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주변과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⑤ ⓐ는 화자가 시대를 태평하다고 판단하는 근거이고, ⓑ는 화자가 도달할 수 없다고 여기는 이상향을 의미하는 대상이다.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33. [A]~[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차림 단장'은 '청명시절'을 맞아 들뜬 화자와 일행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
② [B]에서 화자는 '적벽강', '채석강'과 '이러한 좋은 경치'를 비교하여 자신이 방문한 장소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
③ [C]의 '봄날 하루 긴긴날'의 경험은 화자가 '태평한 세월'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 데 영향을 미친다.
④ [A]에서 화자는 '꽃'을 매개로 자신과 다른 대상들 간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B]에서 화자는 '꽃 사이에 앉'아 다른 대상과 공감대를 형성한다.
⑤ [B]의 '신선'과 '선녀'는 탈속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C]의 [illegible] 분위기에 동화된 데 따른 화자의 [illegible]

선지 적중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인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①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뫼'의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에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illegible]
③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illegible] '명월'을 다른 것이 '대할' 수 [illegible]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illegible]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김이 이에서 더 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
⑤ (가)에서 '맺힌 간장이 오늘은 해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일시적 만족감을, (다)에서 '백구'와 '백년'을 놀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

보기 적중

상상국어 시즌3 모의고사 4차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특정 계절의 풍광을 감상하며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 데 따른 화자의 심경을 드러낸다. (가)의 화자는 화전놀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도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인다. 반면 (나)의 화자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봄날의 흥취를 지속하려는 바람을 강조하며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① (가)의 '규중에 쌓힌 간장'이 '오늘에야 쾌해졌다는 것에서, 화자가 자연에서 유람을 즐기며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해방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의 '백발'을 흩날리며 '고향 산천'을 찾아오겠다는 것에서, 유람을 끝내는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화자가 훗날을 기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③ (나)의 [illegible] '홍취 있게 놀'려는 것에서, [illegible] 환경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illegible] 니 놀고 무엇 하'겠냐는 것에서 [illegible] 는 화자의 의도를, (나)의 '옛 흥취'가 새롭다는 것에서 동일한 공간을 다시 방문한 데 따른 화자의 감회를 엿볼 수 있군.
⑤ (가)의 '서산에 지는 해'가 '재촉'한다는 것에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처지를 자각한 화자의 모습을, (나)의 '서산에 지는 해'를 '잡아매'려 하는 것에서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현재의 흥취를 지속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문학: 고전 시가 [27~30] 「화전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이렇듯이 좋은 해에 이때가 어느 때뇨
불한불열 삼춘이라
버드나무 드린 곳에 꾀꼬리 편편하고
수놓은 장막 베푼 곳에 벌 나비 분분하다
우리 꾀꼬리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날짜를 정하자 하니 좋은 날은 언제런고
이월이라 이십오일 청명시절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 덧에 다닫고야
아이 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 주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 차례대로 달아나니 호화 장식 찬란하다
(중략)
꽃 사이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여자의 소견인들 좋은 경치 모를소냐
규중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한지고
가슴이 상쾌하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 서산에 지는 해가 깊은 계곡 재촉하여
층암 고산에 저녁 안개 일어나고
푸른 나무 숲속으로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 하거들랑 창안백발 흩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작자 미상, 「화전가」

『이매진』 4호 108쪽_4주차 DAY 3

(나)

불한불열(不寒不熱) 삼춘(三春)이라
심류청사(深柳靑絲) 드린 곳에 황앵(黃鶯) 편편(片片)하고
천붕수장(天崩繡帳)* 베푼 곳에 **봉접(蜂蝶)이 분분(紛紛)**하다
우리 황앵 아니로되 꽃은 같이 얻었으니
우리 비록 여자라도 이러한 태평세(太平世)에 아니 놀고 무엇하리
백만 년을 다 버리고 하루 놀음 하려 하고
일자를 정차 하니 길일양사* 언제런고
이월이라 염오일(念五日)은 청명시절(淸明時節) 제때로다
손꼽고 바라더니 어느덧에 다 닫고야
아이종 급히 불러 앞뒷집 서로 일러
소식하고 가사이다 노소 없이 다 모이어
차차로 달아나니 응장성식(應粧盛飾) 찬란하다
(중략)
화간(花間)에 벌여 앉아 서로 보며 이른 말이
규중(閨中)에 썩힌 간장 오늘이야 쾌(快)한지고
흉금(胸襟)이 상연(爽然)고 심신이 호탕하여
장장춘일(長長春日) 긴긴날을 긴 줄도 잊었더니
서산에 지는 해가 구곡을 재촉하여
층암고산(層岩高山)에 모연(暮煙)*이 일어나고
벽수동리(碧樹洞裏)에 숙조(宿鳥)가 돌아든다
흥대로 놀려 하면 인간의 자연 취객이
아닌 고로 **마지못해 일어**나니
암하(岩下)야 잘 있거라 강산아 다시 보자
시화세풍(時和歲豊)* 하거들랑 창안백발(蒼顔白髮)* 흩날리고
고향 산천 찾아오마

작자 미상, 「화전가」

대목 일치
작품 적중

문학: 고전 시가 [27~30] 「화전가」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①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뫼'의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에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③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무릉원'으로, (나)에서 '청풍'과 '명월'을 다른 것이 '대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여기는 것에서,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김'이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

⑤ (가)에서 '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 (다)에서 '백구'와 '백년'을 놀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

『이매진』 4호 109쪽_4주차 DAY 3

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모두 조선 시대 사대부가의 여성이 쓴 시가로,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이자 희망의 이미지를 환기하는 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가)에서 봄은 규방에 갇혀 외롭게 생활하는 화자의 처지를 부각함으로써 화자의 심회를 자극하는 시간으로 그려진다. 한편 (나)에서 봄은 여성들이 집의 규방을 벗어나 함께 화전놀이를 즐김으로써 시름을 달래는 시간으로 그려진다.

① (가)의 봄밤에 '달'이 비친 '금 술잔'은, 만물이 생동하는 활기찬 봄의 분위기와 대조되는 규방의 적막한 분위기를 심화하는 소재이겠군.

② (나)의 '규중에 썩힌 간장'이 '오늘이야 쾌하다는 것은, 화전놀이를 통해 화자의 시름이 일시적으로 해소된 정황을 보여 준 대목이겠군.

③ (나)의 '시화세풍'에 '고향 산천'을 찾겠다는 기약은, 봄이 지닌 희망의 이미지를 환기하여 자연을 즐기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대목이겠군.

④ (가)의 '수실 늘어진 비단 휘장'과 (나)의 '봉접이 분분'한 '천봉수장'은, 거처하는 규방을 묘사함으로써 각각의 화자가 사대부가의 여성임을 짐작하게 해 주는 소재이겠군.

⑤ (가)의 '홀로 잠 못 이뤘'다는 것은, 규방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나)의 '마지못해 일어'났다는 것은, 오래 규방을 비울 수 없는 화자의 처지를 시사하는 대목이겠군.

<보기> 적중

선지 적중

문학: 고전 시가 [27~30] 「공명을 헤아리니~」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나)

㉠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동문에 괘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뫼**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긔 좋은가 하노라

- 작자 미상 -

* 동문에 괘관하고 : 벼슬을 그만두고.
* 임고원망 :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는 것.
* 승화귀진 : 자연에 순응하며 살다가 [illegible]

『이매진』 6호_1주차 DAY 3

(나)

ⓐ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동문에 괘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기를 파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도 낚고 뒷뫼에 엄긴* 약도 캐다가 임고원망*하여 임의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자래하니 아지 못게라 천양지간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쏘니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老死太平)하여 승화귀진*** 하면 긔 좋은가 하노라

작자 미상, 사설시조

* 괘관하고 : 관을 벗어 걸고, 벼슬을 그만두었다는 의미.
[illegible] 곳을 바라보는 것.
[illegible] 다가 생명을 다할 때 자연의 귀결에 [illegible]

작품 적중

---

3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는 사대부가(士大夫家)의 여성이 자연에서 화전놀이를 하는 상황을, (나)와 (다)는 사대부가의 남성이 강호에서 지내는 상황을 보여 준다. 세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대부가로서의 공통적 인식이 드러나기도 하고, 사대부가의 여성이나 남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외견의 정서, 행위, 주변 대상과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기도 한다.

①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 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낚고 '뒷뫼'의 '약'을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② (가)에서 '금오산'의 푸름을 보며 '충신'을 연상하고, (나)에서 '전려'에 돌아와서도 '성경현전 헤쳐 놓고 읽'는 것에서, 유교적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는 사[illegible]
③ (가)에서 '청계변'의 광경을 [illegible] '명월'을 다른 것이 '대할' 수 [illegible] 자연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illegible]
④ (가)에서 '부녀자들 함께 즐김'이 '이에서 더'하겠냐고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공동체적 흥취를, (다)에서 '풍월'을 '벗'으로 삼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자족적 흥취를 엿볼 수 있군.
⑤ (가)에서 '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 만족감을, (다)에서 '백구'와 '백년'을 놀고자 하는 것에서 사대부가 남성의 지속적 만족감 추구를 엿볼 수 있군.

<보기> 적중

---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강호는 사대부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러한 작품에서 화자는 대개 출사를 하지 않고 강호에 묻혀 학문에 정진하거나 혼란한 정계에서 벗어나 일신의 수양에 힘쓰고자 강호를 찾는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강호에 묻혀 사는 은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재의 좌절에서 벗어나 정계로 복귀하고자 하는 욕망을 표출한 작품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강호는 화자가 현실적 불만을 감춘 채 잠시 머무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① (가)의 '귀거래 귀거래 말뿐'이고 '갈 이 없'다는 것은, 이상적인 공간인 강호에서의 삶을 실천하지 않는 사대부들을 향한 비판을 드러낸 것에 해당하는군.
② (나)의 '노사태평하여 승화귀진'하면 좋다는 것은, 강호에 묻[illegible] 이 자연의 순리에 부합하는 일임을 [illegible]
③ [illegible] 임금님께 달렸으니'는, 현실의 불[illegible] 돌아가고 싶은 화자의 욕망을 드러낸 대목에 해당하는군.
④ (가)의 '청풍명월이 나명 들명 기다'린다는 것과 (다)의 '송죽이 반기는 듯'하다는 것은, 강호에서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삶의 모습을 긍정한 것에 해당하는군.
⑤ (나)의 '동문에 괘관하고 전려에 돌아와서'와 (다)의 '남쪽 고을 백 리 땅'에서 '백성과 함께 쉬'려 했다는 것은, 화자가 혼란한 정계에서 벗어나 강호를 찾는 상황에 해당하는군.

언어: [35~36] 「문장 – 병렬 구성」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병렬 구성에서는 둘 이상의 요소가 대등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이들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도 의미는 유지된다. 예컨대, '밖은 춥고 안은 덥다.'나 '안은 덥고 밖은 춥다.'는 둘 다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또한 절이 병렬 구성을 이룰 때,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똑같은 말이 동일한 문장 성분이면 후행절의 해당 성분이 생략될 수 있다. '형은 지금 네 살이고 동생은 지금 세 살이다.'에서 후행절의 '지금'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상국어 시즌3 4차 35~36번

위 문장은 '길이 질었다'와 '길이 미끄러웠다'라는 두 절이 '나열'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고'에 의해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 '눈이 내리다'가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에 의해 뒤의 이어진문장 '길이 질고 미끄러웠다'에 종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때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두 절의 의미가 각각 독립적이어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의존하지 않지만,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의 의미가 뒤 절의 의미에 의존한다. 따라서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길이 미끄럽고 질었다.'처럼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상 차이가 없지만,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은 "길이 질고 미끄러워서 눈이 내렸다.'처럼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비문이 되거나 의미의 변화가 일어난다.

한편 위 문장은 과거 시제이지만 이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었-'은 '미끄럽다'에만 결합되었는데, 각 절에서 '-었-'이 생략된 이유는 다르다. 먼저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과 뒤 절에 '-었-'이 반복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 앞 절의 선어말 어미가 생략되었다. 반면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의 앞 절에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어서'가 쓰여 앞 절과 뒤 절의 시간적 선후 관계가 이미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었-'이 생략되었다. 이때 대등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길이 질었고 미끄러웠다.'처럼 '-었-'을 반복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만, 시간적 선후 관계가 드러나 있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눈이 내렸어서 길이 미끄러웠다.'처럼 '-었-'을 반복할 경우 비문이 된다.

내용 적중

언어: [37] 「담화 – 담화 상황의 이해」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7.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현기의 부모가 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려는 상황〕

엄마: 아들, 여행사 안내문 좀 가져다줄래? 엄마가, 우리 언제 나가야 하나 좀 ㉠보자.

아빠: (방에 들어오며) ㉡당신 뭐해요?

엄마: 요 ㉢앞 여행 때 늦었던 게 생각나 시간 좀 보려고요.

아들: (엄마에게 전해 준 안내문을 함께 보며) 여기 말고, ㉣다음 장. 네, 거기, 집합 장소에서 11시에 모여야 한대요.

아빠: 그럼, 집 ㉤앞에서 9시 버스 타면 되겠네요. 아, 어머니 전화 왔었어요. ㉥당신께서 오후에 현기 보러 오신대요. 현기야, 우리 올 때까지 잘 지내고 있어.

아들: 네, 잘 다녀오세요. ㉦다음에는 저도 같이 갈게요.

엄마: 그래, ㉧우리 갔다 올게. 할머니랑 둘이 있는 동안에도, 우리, 화초에 물 매일 꼭 ㉨주자.

① ㉠의 주체는 ㉧이 가리키는 대상과 같다.
② ㉡과 ㉥은 모두 청자를 가리킨다.
③ ㉣은 ㉤과 달리 지난을 가리킨다.
④ ㉦이 가리키는 시간은 ㉢보다 먼저이다.
⑤ ㉨의 주체에는 ㉡이 가리키는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5일차 37번

37.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영호, 종민, 지우가 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상황〕

영호: ㉠너희 혹시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괜찮아?

종민: 응, 난 괜찮아.

지우: 난 ㉡그때 동생이랑 잠깐 어디 가기로 했는데, 오후에는 괜찮아. 근데 무슨 일이야?

영호: 지난 축제 때 너희가 진행을 맡아서 정말 잘했잖아?

종민: ㉢그때 네가 많이 도와줘서 그랬지. 다 네 덕분이야.

영호: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다음 주에 있을 발표회의 진행을 나한테 맡기셨는데, 대본을 좀 봐 줄 수 있을까?

지우: 그래? 당연하지. ㉥우리가 도와줄게.

영호: 정말? 고마워. 그럼 어디서 만날까?

종민: ㉦여기는 주말에 닫을 테니, 어제 갔던 ㉧거기는 어때?

영호: 학교 앞 스터디 카페? 좋아, 오후 2시에 거기서 보자.

①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상이하다.
② ㉡과 ㉢은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를 가리킨다.
③ ㉢과 ㉧은 앞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을 다시 가리킨다.
④ ㉣과 ㉤은 발화 시점에 따라 가리키는 시간이 달라진다.
⑤ ㉦과 ㉧은 모두 발화 장소와 다른 장소를 가리킨다.

선지 적중

언어: [38] 「단어 – 격 조사와 보조사」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38.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3점]

<학습 활동>

격 조사나 보조사는 앞말에 둘 이상 결합할 수 있다. 이때 이들의 결합 유형에는 '격 조사-격 조사', '격 조사-보조사', '보조사-격 조사', '보조사-보조사'가 있다. 예컨대 '형에게조차도'의 '에게조차'는 두 번째 유형에, '조차도'는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 또한 일부 격 조사와 달리, 보조사는 어미나 부사 바로 뒤에도 결합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아래 문장에서 확인되는, 격 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 모두 나타나 있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 애는 늦게나마 나만을 위해 자기한테만 있는 책을 빌려줬다.

① 작은 집이나마 필요한 동물은 고양이만이 아니겠다.
② 뜻밖에 그 좋은 소식이 큰누나에게까지는 전해졌다.
③ 규정만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길이 이밖에는 없었다.
④ 논리가 이것뿐이라면 말로써는 이길 도리가 없겠다.
⑤ 우리만의 장점을 그에게 조금이라도 설명해야 했다.

상상국어 N제 언어와 매체 19일차 38번

38.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조사에는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가 있다. 격 조사에는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앞의 체언이 각각 주어, 목적어, 보어, 부사어, 서술어의 자격을 갖도록 한다. 보조사는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나 어미 뒤에도 결합하여 앞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 주며, 접속 조사는 단지 체언과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줄 뿐이라는 점에서 격 조사나 보조사와 구별된다.

ⓐ 그 사람은 자기 일에 열의가 아주 대단하다.
ⓑ 그녀는 부잣집의 막내로서 유복하게 자랐다.
ⓒ 잔칫집에서 고기랑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부터 건강이 좋아졌다.
ⓔ 딸아이는 친구와 만나기 위해 놀이터에 갔다.

① ⓐ에는 격 조사 한 개와 보조사 두 개가 사용되었다.
② ⓑ에는 격 조사 두 개와 보조사 두 개가 사용되었다.
③ ⓒ에는 격 조사 두 개와 접속 조사 한 개가 사용되었다.
④ ⓓ에는 격 조사 세 개와 보조사 두 개가 사용되었다.
⑤ ⓔ에는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가 모두 사용되었다.

내용 적중